



솔붓꽃

글 : 김재황(詩人)

사 진 : 김정명(寫眞作家)

學 名 : *Iris ruthenica* KER-GAWL

붓꽃과에 딸린 여러해살이풀로, 우리나라 중부지방의 산지에서 자란다. 양지를 좋아하며 장일성(長日性)을 지녔다. 키는 8cm안팎. 4월경에 연한 보라색 꽃이 피고, 7월경에 삭과(蒴果)가 결실한다. 꽃은 양성화(兩性花). 약용, 관상용, 공업용으로 뿌리줄기가 이용된다. 독성은 없다. 가뭄과 추위에 견디는 힘이 있다.

솔붓꽃은 일명 ‘자석포’(紫石蒲)라고도 부르는데, 붓꽃 종류 중에서 꽤 작은 편에 속한다. 하지만 작다고 어찌 붓꽃이 아니라. 솔붓꽃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붓의 모습을 하고 뼈죽이 얼굴을 내미는 그 꽃봉오리가 그리 아름다울 수가 없다. 문득 바람결에 묵향(墨香) 한 점이 번지며, 불현듯이 선비 이야기가 생각난다. 옛날, 이희수(李喜秀)라는 사람이 있었다. 자는 상옥(尙玉)인데, 나중에 유향(裕瓊)이라고 이름을 고쳤다. 본관은 경주, 호는 소남(小南)이었으며, 상원 사람이었다.

1836년에 태어난 그는, 5살 적에 붓을 처음 잡았고, 9살 때에는 이미 글씨로 이름이 알려졌다.

그는 놀인 조광진의 수제자인 차규헌과 함께 글씨를 연습하여 마침내 ‘중봉필법’(中鋒筆法)을 깊이 깨달았다. 자나깨나 손에서 붓을 놓지 않아, 그는 손에 굳은살이 박혀서 흑처럼 보였다.

그의 글씨를 본 사람이면, 누구나 그를 신필(神筆)이라고 불렀다. 그가 쓰는 전서, 예서, 해서, 행서, 초서는 각기 사법체(四法體)가 자유롭게 변화하기에 보는 이로 하여금 감탄을 하게 했다.

아, 세상의 속된 욕심을 깨끗이 비우고, 다만 붓 한자루에 그 영혼을 담아 글씨 쓰기로 일생을 바친 이희수. 붓꽃의 이미지를 명필에 둔다면, 그는 마땅히 작지만 야무진 솔붓꽃에 비유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붓꽃류의 뿌리줄기는 ‘계손’(溪蓀)이라 부르며 약재로 사용한다. 소화를 도와주고, 타박상으로 맺힌 피를 풀어 주며, 종기를 가시게 하는 효능이 있어서 소화불량, 체증, 인후염, 주독, 폐렴, 촌충, 편도선염, 백일해, 해소 등의 치료 약이 된다.